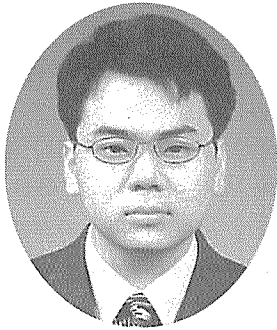


#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7)

- 자동 번역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정보의 이용 -



글 / 류지창  
(주)데이콤 천리안사업본부

또한 한글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는 일본어, 독일어, 불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진 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각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언어로 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인터넷의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영어가 아닌 인터넷의 자료는 어떻게하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인**터넷을 써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영어'를 잘해야 인터넷도 잘하겠더라는 것이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영어가 현실적인 국제 공용어이긴 하지만 인터넷은 '미국의 네트워크'가 아닌 '세계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수 많은 언어로 된 정보들도 많아 들어있다. 대표적인 것이라면 물론 국내의 웹사이트들에 담긴 우리글로 된 자료들이다. 국내에 인터넷이 알려지기 시작한지 겨우 4년만에 외국에 내 놓아도 손색없는 우수한 정보원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우고 있다. 한글로 된 정보만을 찾아주는 심마니(<http://simmany.chollian.net/>)나 미스 다찾니(<http://www.mochanni.com/>) 등의 서비스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일본어로 되어 있는 정보이다. 인터넷상의 일본어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한글 버전 인터넷 프로그램들이 일본어를 화면에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기호와 문자로 일본어가 표시된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일본어로 나타난 경우라도 일본어를 모르면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인터넷상의 일본어 정보를 무료로 일본어로 표시해 주고 또 한글로 번역까지 해주는 곳이 있다. 정보탐정(<http://www.infocop.com>)이 바로 이 곳으로 창신소프트에서 개발한 일본어 번역 기술을 이용하여 일본 웹사이트의 정보를 일본어로 표시해 주기도 하며 우리말로 번역을 해

주기도 한다.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http://www.infocop.com/>) 에 접속한 후 화면의 메뉴에서 日本웹여행 이라고 적힌 부분을 클릭한후에 다음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보고싶은 일본 홈페이지의 URL”란에 일본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사이트의 내용이 일본어로 보인다. 한글로 보기 위해서는 화면 위에 나타나 있는 “번역보기”라는 글자를 클릭하면 한글로 표시된다. 이 곳을 이용하면 일본어는 무섭지 않게 되는 것이다.

현재 일본어를 한글로 자동 번역해 주는 기술을 가진 곳은 유니소프트, 창신소프트 등의 업체가 있으며, PC 통신 천리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유니소프트의 바벨프로그램을 하루 600원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본어 번역 프로그램의 번역률은 90%가까이 되므로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대략의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 공개되어 있는 버전보다 많은 단어를 해석하고 또 깊이 있게 번역해주는 고급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기도 하며 가격은 다양하지만 대개 10만원 대이다.

일본어는 번역이 되는데 영어는 번역되지 않을까? 영어를 바로 우리말로 번역해주는 영한번역 소프트웨어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번역수준이 아직 일본어 번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 결국 영어는 스스로 읽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인터넷의 현실이다.

영어 외에도 인터넷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불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등 다양하다. 이런 언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도 우리에게겐 필요하지만, 영어공부하기도 벅찬 현실에서 포르투갈어까지 공부하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길은 있다. 알파벳을 기

반으로 하는 언어들 즉,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 독일어, 포르투갈어로 된 자료들은 우리말은 아니지만 즉시 영어로 해석해서 읽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영어만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수많은 언어로 된 자료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은 Systran사에서 개발한 번역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Altavista에서 가능하다. Altavista는 유명한 검색서비스이지만 동시에 번역서비스이기도 한데, 번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http://babelfishaltavista.com./>으로 접속해야 한다. 이 곳에 접속하면 화면 한 가운데에 빈 네모가 있다. 이 곳에 번역할 문장을 직접 입력해도 되며, 번역할 다른 언어로 된 자료의 인터넷 주소 (URL) 을 입력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http://210.115.193.23/Teams/fre.htm>는 라디오 코리아 방송 안내를 불어로 해둔 문서이다. 이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서 읽고 싶다면 <http://babelfishaltavista.com./>에 접속한 후 화면 가운데의 네모에 이 주소를 그대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French to English를 선택한 후 Translate 단추를 눌러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다음 화면에서 영어로 즉시 번역된 문장을 읽을 수 있다.

일본어 번역이나 영어 번역 사이트를 이용하다보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되고 또 무척 재미있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하지만 꼭 재미있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할 곳들은 아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러한 번역 서비스를 알아둬으로써 몇 배 넓은 정보를 수집능력은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언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엔 너무나 값진 정보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즉시 접속해보자. 일본어는 <http://www.infocop.com./>, 영어는 <http://babelfish.altavista.com./>이다.